

문답으로 이해하는 알기 쉬운

윤리경영

100문

100답



『옳은 행동은 옳은 것이다. 아무도 실천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도 말이다.

(What is right is right even if no one is doing it).

What is wrong is wrong even if everyone is doing it.

-작자미상-



대한상공회의소

들어가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직원들의 행동양식을 혁신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틀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영 현장에서 매일 직면하는 윤리적 이슈를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윤리경영 100문 100답’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삽화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답으로 이해하는 알기 쉬운 -

윤리경영 100문 100답 / 목 차

- 윤리경영 100문 100답의 필요성 / 06
- 윤리경영 100문 100답의 구성 / 08
- 윤리경영의 의의 / 10

I 선물 및 금품 수수

- 선물의 정의 / 16
- 선물의 한도 / 20
- 고객의 선물 / 23
- 거래처의 기념품 / 29
- 거래처의 특혜 / 31
- 금품수수 / 34
- 지역사회 기부 / 36
- 선물의 대상 / 16
- 고객 선물증정 / 21
- 거래처의 선물 / 26
- 거래처의 공로상 / 30
- 거래처의 뇌물 / 32
- 공무원 선물증정 / 35

II 접대 및 협찬

- 거래처의 행사 찬조 / 38
- 거래처 골프 접대 / 39
- 거래처 술 접대 / 43
- 공무원 식사 접대 / 45
- 거래처의 행사 참가 / 38
- 거래처 식사 접대 / 41
- 거래처 편의 제공 / 44

III 공정거래/주식매매/이해상충

- 거래처 선정 / 48
- 불공정 거래행위 / 51
- 자사 주식거래 / 53
- 상품 정보제공 / 56
- 지연관계와의 업무처리 / 57
- 금전거래 / 60
- 거래처 불법행위 / 49
- 정치인의 청탁 / 52
- 내부자 거래 / 54
- 거래처 주식보유 / 56
- 자산 공동 구매 / 59

Ⅳ 경조사/정보 보호

- 사내 경조금 / 62
- 거래처 경조금 / 63
- 공무원의 경조사 / 64
- 정보유출 / 66
- 강연요청 / 68
- 정보보안 / 70
- 경조사 공지 / 62
- 거래처 축전 / 64
- 정보취득 / 65
- 정보폐기 / 66
- 고객정보보호 / 68

Ⅴ 회사 자산 보호/윤리규범 준수

-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 76
- 고객 행사용품 보호 / 80
- 윤리규범 준수 대상 / 82
- 고객에 대한 윤리 / 84
- 업무 시간 준수 / 78
- 윤리규범 실천 / 81
- 윤리규범 적용 대상 / 83
- 거래처에 대한 윤리 / 85

Ⅵ 내부신고 제도/윤리적 기업문화

- 내부신고 제도 필요성 / 88
- 내부신고 제도 적용 대상 / 90
- 내부신고 제도 갈등 해결책 / 94
- 비윤리적 언행 / 96
- 직장내 성희롱 / 99
- 내부신고 범위 / 88
- 익명제보 / 93
- 윤리의식 제고 / 95
- 금전거래 / 97

부록 윤리플러스 의사결정 모델

- 윤리플러스 의사결정 모델 / 102
- 참고문헌 / 109

■ 윤리경영 100문 100답의 필요성

2006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기업경영의 위험요인’에 따르면 임직원 비리, 노사관계, 이해관계자 갈등, 언론, 환경문제 등 기업의 원칙과 윤리경영 관련 이슈가 전체 응답의 4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발달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기업에 위험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재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과 같은 비재무적 요인이 부각되고 있음을 기업들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이를 매일의 생활에서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00년 KPMG가 3,075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지난 일년 동안 중대한 윤리적 혹은 불법적 행동을 목격했다고 한다¹⁾.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거의 50%에 가까운 응답자가 비윤리적 행위가 언론에 공개될 경우 심각한 신뢰상실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모두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천에 이르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기업의 매일 매일의 활동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인가?

1) KPMG, LLP, 2000 Organizational Integrity Survey : published by the KPMG Integrity Management Services unit.

최근 윤리경영과 관련된 논의에서 윤리경영의 원칙, 이론 등 철학적인 접근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 매뉴얼이나 자가진단 툴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도 ‘How-to’ 즉 ‘어떻게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잡아야 하는 윤리경영에 대한 오해가 있다. 대부분 기업의 윤리를 개인의 윤리, 즉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해결하기 어렵고 얽혀있는 복잡한 난제를 피하는 윤리적 절대주의 접근법을 채택한다. 따라서 대부분 기업들의 윤리경영 교육내용이 실제 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윤리적 이슈를 다루지 않고 ‘흑백논리의 사례’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비주류 이슈로 치부해 버리기 쉽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윤리적 이슈는 어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윤리적 이슈는 옳고 잘못된 것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닌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윤리경영 100문 100답】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서는 회사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윤리경영의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기업의 일반적인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항을 토대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윤리경영 100문 100답의 구성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윤리적 도전을 겪게 된다. TV나 라디오에서 접하게 되는 기업의 비윤리적 사례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아무리 윤리적이라 해도, 윤리경영이 기업 문화화 하지 않는다면 조직 차원의 윤리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리경영 100문 100답】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중심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사례의 주인공이라고 상상하고 읽는다면 체감효과 또한 극대화 되리라 본다. 물론 기업마다, 업종마다 일반적인 윤리경영의 이슈는 다를 수 있으나,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첫 장에는 윤리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윤리경영 100문 100답】에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존재한다. 바로 우리 스스로인 ‘나’를 의미하는 ‘나윤리’와 그의 동료들, 상사, 거래처 직원, 고객들이다. 사실 내가 ‘나윤리’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사, 거래처 직원, 고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지침서는 ‘나윤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윤리’라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행동 및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하여 관심 있게 읽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소개하는 사

레들이 TV나 신문에서만 가끔 볼 수 있는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긴다면 100문 100답의 효과는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한다.



■ 윤리경영의 의의 ■

1. 윤리경영이란

윤리경영이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경영이란 막연히 ‘기업은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구조를 윤리적인 기준에 적합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지침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 활동이 사회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기업경영 환경하에서 기업의 윤리적 행위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유지 및 발전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캐롤(A. Carroll)교수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물론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을 기업의 의무라고 규정짓고 있다.

법적 책임이란 공정거래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각종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이고, 경제적 책임이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해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적 준수의 의무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기업이 따르는 것이다.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자선적 책임과 비교된다. 예를 들어 제지업체가 나

무심기 사업을 한다면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자업체가 한다면 자선적 사업에 해당된다.

윤리경영은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처럼 기업의 활동에 하나의 부가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잘 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전사적인 관심사이다. 또한 기업의 특정경영자 또는 특정한 부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기업 전체가 참여하고 실천하여 기업문화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다. 또한 윤리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과 가치를 나누어 21세기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2. 윤리규범의 구성

윤리규범의 내용은 기업의 경영정책과 경영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기본정신

-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을 공감하고 전 직원 각자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때 ‘기업정신’으로 정립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여 회사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

- 우리는 본인이 매일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에 의하여 우리 회사가 명성을 얻게 되고 회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 주주 및 투자자

-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이 주주 자본주의의 대명제이다.
-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다. 임직원

- 임직원 개개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임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임직원이 지니는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며 인재를 확보함에 성별, 학력, 출신지역, 종교, 인종, 국적, 장애여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공평하게 보상하는 교육훈련제도와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라. 고객

- 우리는 고객을 포함한 모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인간존엄성이라는 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 ‘기업은 고객에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명제이다.

마. 협력업체

-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협력회사를 선정함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선정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도록 협조하고 지원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협력회사를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래선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 국가와 지역사회

-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체로써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야 한다.
- 회사는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 선물 및 금품 수수

Q&A

01~26

- 선물의 정의 / 16
- 선물의 대상 / 16
- 선물의 한도 / 20
- 고객 선물증정 / 21
- 고객의 선물 / 23
- 거래처의 선물 / 26
- 거래처의 기념품 / 29
- 거래처의 공로상 / 30
- 거래처의 특혜 / 31
- 거래처의 뇌물 / 32
- 금품수수 / 34
- 공무원 선물증정 / 35
- 지역사회 기부 / 36

01 윤리규범 상에서 '선물'의 정의

Q 나윤리 사원은 근무하면서 선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선물을 받을 때 마다 받아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본인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것이 뇌물일 수도 있고,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윤리규범을 살펴보니 '선물'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선물'은 대가 없이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02 팀내 사기 진작을 위한 상사의 선물

Q 나윤리 사원은 현재 팀에 근무한지 일 년 쯤 되었다. 이전 부서와는 달리 팀 분위기가 서로의 경조사를 챙겨주는 분위기였다. 지난 달 김원칙 부장은 팀원 아들의 생일에 케익이나 사주라며 상품권을 주었다. 이전 부서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의아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나윤리 사원의 생일에 김원칙 부장은 이메일 카드와 장미꽃 한다발을 선물했다. 김원칙 부장은 팀원의 사기를 위해 직원의 생일에 항상 선물을 하곤 한다면서 부담 없이 받으라고 했다. 나윤리 사원은 생일이어서 받은 선물이긴 하지만 윤리규범에 보면 직원 간

선물수수를 하지 말라는 조항을 본 것 같은데 직장 상사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됐다. 혹시 상사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사내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A 상사가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간소한 선물을 주는 것은 윤리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사의 이메일 카드나 장미꽃 한 다발 정도는 직원들의 단합에도 도움이 되며 화기애애한 일터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임직원간의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명절, 결혼, 생일, 돌잔치 등 기념일에 제공받는 간소한 선물이나 음식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물론 대가를 바라는 과도한 선물은 사양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나윤리의 경우는 대가를 바란다가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을 받아도 무방하다.



03 상사의 승진을 축하하는 팀원의 선물

Q 나윤리 사원이 오랫동안 모시고 있는 김원칙 부장이 승진을 했다. 김원칙 부장은 지난번 승진에서 누락되어 상심이 컸었는데 이번에 승진하게 되어 본인 뿐 만 아니라 팀원 모두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대하던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팀 내 직원들과 돈을 각출하여 선물을 마련했다. 상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직원들이 자진하여 돈을 모은 것이므로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 같진 않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A 사내 직원 간 과도한 선물수수는 불가하지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선물이 라면 허용된다. 따라서 위의 상사 승진에 대한 선물은 윤리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사에게 고가의 수입 양주나 시계와 같이 분에 넘치는 과도한 선물을 할 경우, 이는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잘 봐 달라'는 식의 뇌물성 선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정을 확인하고 친목을 돈독히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소박하고 단출한 선물이 적당하다.

04 상사의 경조사에 대한 팀원의 선물

Q 나윤리 사원은 김원칙 부장의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여 그 기념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하려고 한다. 직장 선배 이전에 오랫동안 알아왔

던 분이고 그 자녀도 내가 나온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축하의 선물을 주고 싶다.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라고 신문지상에서 읽은 것 같아 이왕이면 선물 품목을 김부장의 자녀가 좋아할 만한 디지털 카메라로 정했다. 내가 주는 선물은 어떠한 특정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를 선물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

A 나윤리 사원이 부장의 자녀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하는 것은 윤리규범에 어긋난다. 나윤리 사원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해도 임직원 상호 간 과도한 선물수수는 금지되며 디지털 카메라는 가격 상 '과도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직원의 경조사에 꽃이나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선물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와 관련하여 윤리규범에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만 원 이내를 권장하고 있으며 참고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3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는 윤리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05 업무상 관련성이 낮은 지인으로부터의 선물 수령

Q 나윤리 사원은 보험회사에 다니는 대학친구에게 최근 건강보험을 하나 가입했다. 그 친구가 최근 술자리에서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아서 괴로워 하길래 여윌돈도 있고 해서 선뜻 가입하였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명절에 선물을 하나 보내왔다. 사실 친구가 이런 선물을 보내온 것은 처음이긴 한데, 지난번 도와준

것이 고마워서 그런 것이니 부담 없이 받으라고 했다. 이런 친구가 주는 선물도 추석선물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윤리규범에서 추석명절 때 선물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업무에 영향을 줄 때에 한한다. 위의 나윤리 사원의 보험가입 건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윤리 사원의 업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으며,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타 팀원이 가입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친구의 선물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06 윤리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선물의 한도

Q 나윤리 사원은 최근 사내 전 직원 대상 윤리경영 강의를 듣고 사내 선물수수 허용범위를 처음 알게 되었다. 경조사에 대하여 5만 원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선물의 수수자가 공무원일 경우 그 기준이 3만 원 정도라고 한다. 나윤리 사원이 생각하기에 선물수수 허용범위가 현재의 경조사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윤리경영이 정착되어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선물의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A 윤리규범에 대하여 처음 교육받는 사람의 반응 중 대부분이 선물수수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낮다' 라고 반응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득이 높은 기업이나 국가일수록 경조사의 선물한도가 오히려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보통 25달러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IBM은 심지어 한도를 10달러로 하고 있다. 물론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50달러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어서 기업 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선물의 한도를 지키되, 선물의 금액만큼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고받는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07 VIP 고객 선물 증정

Q 김원칙 부장은 회사의 주요 VIP 고객을 선정하여 연말 감사의 뜻으로 굴비 1세트(15만원 상당)를 선물하려고 한다. VIP 고객들은 거래관계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들이라서 감사 인사 겸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윤리 사원에게 법인카드를 주며 굴비세트를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전달하라

고 했다. 그런데 나윤리 사원은 김원칙 부장의 의도가 어떠한 뇌물성 선물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회사 비용으로 고객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서 전달해도 될지 궁금하다.

A 아무리 김부장의 의도가 뇌물성 선물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도, 고객에게 굴비세트 같은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무리 상사의 지시이고 회사의 중요한 VIP 고객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비용으로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것은 미풍양속뿐만이 아니라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윤리 사원은 상사와 상의하여 회사의 판촉용품이나 검소한 선물 등 통상적 수준에서 선물하도록 해야 한다.

08

기업 홍보용 고객사 선물 증정

Q 매년 연례행사로 연말이 되면 모든 고객사 대표를 회사로 초청하여 ‘고객사 송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녁 만찬 후 기념품을 모든 참석자에게 배포하곤 한다. 이 경우 1년 간 거래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기념품 선물(예, 20~30만 원 상당 물품)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객사 대표 전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A 회사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회사의 회의에 참석한 인사의 격에 따라서는 고가의 선물이나 기념품을 주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사전에 회사

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해당 선물에 회사 로고를 넣어 배포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선물이 아무리 고가라 할지라도 다수의 고객사에게 동시에 배포하는 것이고 회사 기념품에 로고를 넣어서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09 업무관련 고객의 금전 선물 수령

Q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투명 대리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리하는 고객 이 최근 투자 수익률도 높고 나대리가 여러모로 일을 잘 처리해주어서 고맙다며 추석 명절 때 봉투에 현금 10만원을 넣어 주었다. 나투명 대리는 특별히 다른 고객과 차별화 하여 대우한 적이 없고, 고객 스스로도 대가성이 없다고 말했으며 특정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별다른 고민 없이 받았다.

A 나투명 대리의 행동은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고객으로부터 현금, 즉 수표, 어음, 상품권, 예금증서 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선물의 경우 서로 간에 감사의 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일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사회 통념상 선물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 하게 금품 및 향응 접대를 받은 경우 상사나 윤리담당부서에 보고하고 가능한 제공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나투명 대리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금 액도 사회통념 상 선물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나투명 대리는 명백히 윤리규범을 위반했다. 나투명 대리의 입장이라면 선물수수에 대한 사항을 윤 리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10 업무관련 고객의 비금전 선물 수령

Q 나투명 대리는 최근 주가 상승으로 큰 돈을 벌게 해 준 고객이 식사를 대접 하며 고가의 골동품 시계를 선물하였다. 그 고객은 지금까지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나투명 대리는 골동품 시계라서 망설였지만, 현금도 아니고 그 고객이 번 돈의 아주 일부분이었으며 자신의 성과에 대한 보답 이므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A 담당자가 직위를 남용하지 않고 고가의 골동품 시계를 받았다면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담당자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선물 제공자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선물을 거절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해서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상사와 의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접대가 사업상 일반적인 관행이고 뇌물방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성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객과 거래할 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증권 및 선물 위원회가 자격을 부여하거나 위원회에 등록된 이들의 행동강령, 기업 재정자문역 행동강령, 펀드매니저들을 위한 행동강령 등이 있다.

11 고객의 고가의 선물

Q 나우리 사원은 얼마 전 고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을 접수받고 근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었다. 이에 고객은 빠른 불만

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물을 택배로 보내왔다. 가격을 알 수 없지만 싼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먹는 것이라서 자칫하면 음식이 상하여 버려야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받을까 생각도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위의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고가로 예상되는 선물을 받은 것이므로 윤리규범에 명시되어 있는 금품수수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즉시 반송한다면 자칫 고객의 정성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니윤리 사원은 해당 물품을 윤리담당부서에 접수하고 처리하는 편이 좋겠다.



12 거래처의 명절 선물

Q 나우리 사원은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설날 선물로 과일 한 상자를 받았다. 거래처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서 설날 선물은 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며, 현금이나 상품권도 아니고 직원끼리 나눠 먹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런 경우 선물을 받아도 될지 고민이다.

A 일반적으로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혹은 홍보용 물품만 해당된다. 아무리 거래처가 모든 거래기업에 과일선물을 배포하였고 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처에서 설날 선물이란 이유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경우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또한 선물을 집에 배달해 놓고 가는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도 사내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고 가능하면 발신처에 선물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발신처를 몰라서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이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를 하기도 한다. 물론 기업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다.

13 거래처의 행사 초청 선물

Q 나우리 사원은 작년 연말에 거래처의 연말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했다가, 행운상 추첨에서 KTX 부산 왕복 티켓 2장 및 부산 1급 호텔의 2일간 무

로 숙박권을 탔다. 집에 와서 자신이 받은 티켓을 시가로 계산해보니 무려 60만 원에 육박했다. 그런데 다른 기념품도 수령해도 윤리규범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어차피 추천이라는 것이 성격상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이 윤이 좋아서 탄 상이기 때문에 뇌물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A 나윤리 사원은 위의 경품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추천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규모라면 윤리규범에 위반된다. 최근에는 금품을 제공하는 수법이 다양화되어 추천의 형식으로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 상을 탄 사람이 공공롭게 나윤리 사원 혼자였다면 거래처의 조작으로 추천이 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 나윤리 사원은 추천 받은 금품은 신고를 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처에 되돌려 주어 거래처 회사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14 거래처의 여행권 선물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 직원을 업무상 자주 접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업무 협의 후 종종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시간되면 같이 여름휴가나 가자고 얘기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 직원이 휴가 때 부부 동반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면서 제주도 항공권 티켓(36만 원, 성인 2인 기준)을 주었다.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고 거절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A 나윤리 사원과 거래처 사원의 사이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거래처 직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여행권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과 거래처 직원이 업무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이인 이상 순수한 의도를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동안은 서로간의 선물수수를 자제하고 티켓을 정중히 돌려보내야 한다. 물론 제주도 경비를 각자 부담하는 여행은 무방하지만 업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여행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15 거래처의 할인권 선물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와의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호텔할인권을 받았다. 순식간에 건네주고 사라졌기 때문에 되돌려주지도 못했다. 할인권은 골드회원에게 지급되는 숙박할인권(80%) 및 클럽할인권(80%)이었다. 이런 경우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A 기업마다 다르지만 불가피하게 선물을 받게 된 경우에는 우선 소속 팀장과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통지하면 될 것이다. 기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만 원 이하의 선물이거나 1인당 10만 원 이하이고 총액이 30만 원 이하인 향응, 편의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수령한 선물(할인권)이 상기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중하게 사양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거래처에 반송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지하면 된다.

일부기업에서는 선물 등을 반송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공자를 알지 못하여 반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한 선물 등은 향후에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기도 한다.

16 거래처의 행사 기념품

Q 나윤리 사원은 최근 3년 정도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박 과장으로부터 연말 송년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송년행사가 국내 1급 호텔에서 개최되었고, 모든 참가자마다 기념품으로 선물을 증정할 뿐만 아니라 딱 보기에도 고가의 저녁식사와 와인과 같은 주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명한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인기가수까지 섭외를 한 것을 보니 개최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 아무리 대가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고가의 저녁식사와 기념품 대접을 받아도 윤리규범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하다.

A 위와 같은 경우 나윤리 사원이 편안하게 식사하고 기념품도 고맙게 받아도 윤리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응대 및 접대지침에 따르면 공식적 행사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편의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기념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송년행사는 거래처가 공식적인 행사로써 기념품과 식사는 참가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받아도 괜찮다.

17 거래처의 로고가 찍힌 창립 기념품

Q 나윤리 사원은 최근 거래를 개시한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만년필을 받았다. 거래 개시 후 바로 선물을 받아도 될지 망설였으나, 만년필을 살펴보니 거래처의 회사 창립기념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기업 로고도 새겨있어 거래가 어려운 물건이므로 그냥 받아 두었다.

A 일반적으로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윤리강령에 위배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거래처의 창립기념품이라면 기념품 혹은 홍보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일 경우 거절하는 것이 옳다.

18 거래처의 공로상 증정

Q 나윤리 사원에게 거래처가 그동안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공로상과 부상으로 현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다가 거절을 할 경우 사이가 어색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진다. 공로상 및 부상을 받아도 되는 걸까?

A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상장 또는 상패 정도는 받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부상으로 주는 상품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당스러운 수준일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윤리담당부서에 신고

및 접수를 해야 한다.



19 거래처의 할인 혜택

Q 나윤리 사원은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자사가 후원하는 오페라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팔겠다고 제안해 왔다.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했다.

A 일반적으로 윤리행동 강령상의 '금품'의 정의는 대가없는 물품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물품도 금지하고 있다. 거래처 직원의 제의는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20

거래처의 매진된 축구 관람권 제공

Q

김원직 부장은 월드컵 축구경기를 관전하기 위하여 표를 구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이미 매진이 되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소식을 들은 거래업체 직원이 본인에게 입장권 여유분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김원직 부장은 거래처의 향응, 편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것 같아 거절했더니 관람권을 그 직원이 구매한 가격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너무 보고 싶은 경기였고 같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므로 구입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지 모르겠다.

A

김원직 부장은 거래처 직원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이 경우처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구입하지 못한 표를 구매한 것 자체가 윤리규범상의 '편의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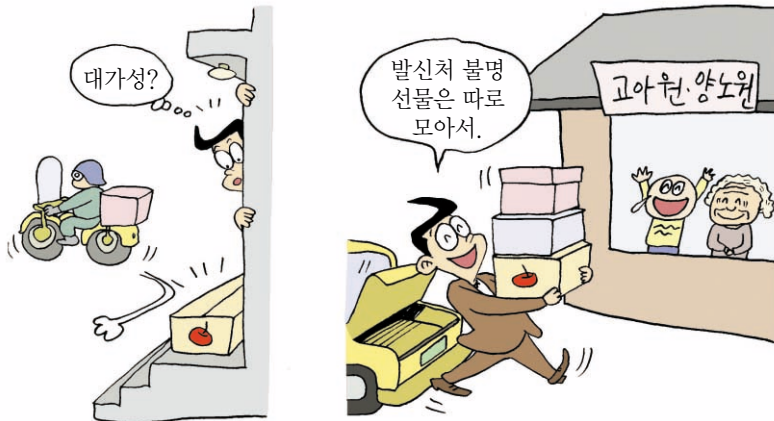
거래처의 뇌물로 의심되는 선물의 처리

Q

나윤리 사원은 시스템 통합 계약의 입찰 검토와 하청업체 선정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시스템 이전 주기라서 대규모 구매가 여러 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딸이 달려와 우편으로 받은 비디오 게임기를 자랑했다. 발신처가 명확하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 우편상자를 살펴보고 짐작컨대, 입찰에 참가한 하청업체가 딸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다. 왜냐하면 주변 동료들도 유사한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데 발신자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A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업체나 고객으로부터 업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선물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명목적인 가치의 선물이나 홍보용 선물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위의 경우는 선물 수수 시기 및 전달방법을 고려해 보면, 업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또는 대가성이 있는) 선물수수로 볼 수 있다. 단순히 발신처가 확실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선물제공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니윤리 사원은 의도치 않게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팀장과 윤리담당부서에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윤리담당부서는 일부 발신처를 몰라서 선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이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를 하기도 한다. 물론 기업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다.



22 거래처의 금품 수수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와 간단한 식사 후 친목도모 차원에서 고스톱을 쳤는데 접대 고스톱 형식으로 본의 아니게 상당 금액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A 거래처와 고스톱 등 직·간접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금품을 제공하는 수법이 다양화되어 접대 고스톱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처와 고스톱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스톱 뿐 만 아니라 당구, 카드, 골프 등 다른 모든 게임도 마찬가지다. 부득이한 경우 고스톱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 크기에 상관없이 신고하여 거래처에 돌려주어야 한다.

23 거래처의 금품 수수 후 반환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이를 곧 후회하고 거래처에 받은 금품을 돌려주었다. 이런 경우에도 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하다.

A 금품을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이다. 즉, 금품을 주머니에 넣는다던가, 서랍 또는 예금계좌에 보관 후 반환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놓고 간 것을 발견한 경우, 인지 후 즉시 상급자 또는 선물신고센터(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다.

24 공무원 신분인 친구에게 선물 증정

Q 나윤리 사원은 친구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친구는 현재 시청에 근무하고 있다. 시청에 근무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추석 명절에 선물을 주는 것도 윤리규범에 위반될까?

A 나윤리 사원은 공무원 신분인 친구에게 선물을 줘도 괜찮다. 일반적인 회사 규정은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순전히 개인적인 관계로 친구나 친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공무원에게 감사 선물 증정

Q 나윤리 사원의 회사는 공공부문으로부터 OO청 입찰 제안을 돕도록 요청 받았다.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매일 밤늦게 까지 일하고 장시간 XX기관 직원들과 회의를 하였다. 일이 끝나고 힘들고 고된 회의 동안 XX기관 직원들이 보여준 성의와 도움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한다.

나윤리 사원은 선약이 있는 관계로 사용할 수 없는 뮤지컬 캣츠(cats) 공연 관람권 2매(약20만 원 상당)가 있어 이를 XX기관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고자 한다.

A 공무원, 준공무원 및 국가기관 종사자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부 직원이나 정당 또는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일체의 지급이나 선물은 사전에 법률고문실 등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다. 공무원이라 함은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이나 국립대학의 교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26 지역사회에 수수한 금품 기부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금품 또는 상품권을 고아원 등 사회 공공기관에 기부하려고 한다. 수수한 금품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윤리규범을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도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A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이면 아무리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위반 사항이 된다. 반드시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소비한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기관에 기부 또는 직원 회사에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반사례에 해당된다. 탈세를 한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해도 탈세를 한 사실은 분명한 위법인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다.



Ⅱ. 접대 및 협찬

Q&A

27~38

- 거래처의 행사 참조 / 38
- 거래처의 행사 참가 / 38
- 거래처 골프 접대 / 39
- 거래처 식사 접대 / 41
- 거래처 술 접대 / 43
- 거래처 편의 제공 / 44
- 공무원 식사 접대 / 45

27 거래처의 행사 찬조

Q 나윤리 사원이 속해 있는 팀은 체육대회, 등산 등이 있을 경우에 가끔 거래처로부터 찬조(음료수, 주류, 경품 등)를 받는 경우가 있다. 큰 액수의 현금이 오고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돕는 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윤리규범에 위반되는지 궁금하다.

A 거래처로부터 찬조를 받는 것은 윤리규범에 위반된다.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거래처에서 먼저 찬조를 한 경우에도 나윤리 사원은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무리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거래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찬조물품을 제공했다고 덱서 받는 것은 거래처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오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예산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특히 찬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처에 얘기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28 거래처 주최 행사 참가

Q 거래처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참가 초청을 하곤 한다. 나윤리 사원은 이러한 초청 때마다 업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수락하곤 한다. 이러한 행동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A

회사 구성원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업무 수행 상 반드시 참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참가비용을 지불하고 참가해야 한다.

29

거래처 주관 골프대회 참가

Q

거래처에서 공식적인 행사(회사 창립 기념, 수출포상 수상기념, 고객감사 대잔치 등)로 골프대회를 주최하여 초청하곤 한다. 공식 행사이긴 하지만 골프대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사이니 만큼 참가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하다.

A

거래처의 공식행사이므로 참가해도 무방하다. 다만 행사의 성격이 업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0

거래처 직원과의 골프

Q

김원칙 부장은 종종 거래처 직원들과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 골프를 친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최신 정보도 공유하고 네트워크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 게다가 골프 비용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A 원칙적으로 임직원은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및 계약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골프 등 고가의 스포츠를 같이 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원칙 부장이 각자 부담으로 거래처 직원과 골프를 치는 것은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 골프접대 선진기업 사례

Q 국내 언론지상이나 윤리규범을 보면 일반적으로 골프접대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데, 선진국

이나 선진기업의 사례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A 선진국에서는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주말 골프는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20~30달러 정도임에도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의 경우는 비용이 1만5천엔~2만엔으로 고가인 만큼 접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거래업체와 골프 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다.

32 거래처의 업무 관련 식사 접대

Q 나윤리 사원이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마케팅을 위해서 점심을 대접하고자 한다. 마케팅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하여 응했다.

A 거래 활성화 등 업무협약과 관련된 간소한 식사대접은 허용되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일반적으로 5만 원 이내 권장)하는 과도한 접대는 금지된다.

33 거래처와의 식사

Q 나윤리 사원이 근무하는 회사는 업무상 다수의 거래처가 있다. 이에 따라 업무 협의를 위하여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거래처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식사를 하면서 한번은 상대방이 계산

하고 한번은 답례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도 윤리방침에 어긋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A 식사를 접대 받을 때와 접대 할 때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일반적으로 5만원 이내 권장)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34 거래처의 식사비용 부담

Q 나윤리 사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업체가 납품 후 인사로 조출하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초대하였으나 거절했다. 그런데 동료들과 회식하는 식당에서 우연히 거래업체 사장과 마주치게 되어 식사 잘하라고 인사하면서 말도 없이 먼저 계산하고 나가버렸다. 부서 전원이 참여하는 회식이다 보니 많은 비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연히 발생한 일이고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윤리강령에는 위반되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나윤리 사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거래업체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체 측에는 호의는 감사하나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면 상대방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35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처 술 접대

Q 나윤리 사원은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 하면서 은근히 술을 한턱 사라는 눈치여서 상사와 사전 협의 후 유흥주점에 가서 접대를 하였다.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사와 협의 후 한 행동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A 유흥주점이라면 통상적 수준을 넘은 과도한 접대로 판단된다. 유흥주점까지 가서 접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윤리규범의 취지를 알려서 거절하도록 해야 한다.



36 거래처의 술 접대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와 식사를 한 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2차로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 초대받는 경우가 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이 놀다보면 흥이 나서 그런 것인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응하면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것인가.

A 거래처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고가의 접대비용은 반드시 접대 수혜자의 업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끌고러워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 셈이다.

37 거래처의 차량 무상 제공

Q 나윤리 사원은 업무 관계로 거래처가 있는 부산까지 출장을 가게 되었다.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거래처 직원이 차량으로 마중을 나왔다. 윤리경영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타지 말아야 할 것 같지만 거래처의 성의를 생각하면 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A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편의(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공항까지의 마중은 손님을 정중

히 맞이하는 우리의 문화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것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미움을 나오게 된다면 거래처에 부담이 될 것이다. 미움을 나오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와 당부를 구하는 것이 좋다.

38 공무원 식사 접대

Q 나윤리 사원과 그의 동료는 정부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회사가 정하고 있는 접대비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범위의 적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러나 초대받은 공무원들은 모두 배우자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한명은 배우자의 여동생까지 대동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값비싼 요리와 와인까지 주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접대비 명목으로 이들을 접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A 대부분의 기업에서 접대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선물, 식사, 오락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회사일지라도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것도 접대를 받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임직원은 회사규정에 맞는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관리자에게 접대과정에서 발생한 규정위반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점심과 저녁 접대에 적합한 비공식 규정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Ⅲ. 공정거래/주식매매/이해상충

Q&A

39~54

- 거래처 선정 / 48
- 거래처 불법행위 / 49
- 불공정 거래행위 / 51
- 정치인의 청탁 / 52
- 자사 주식거래 / 53
- 내부자 거래 / 54
- 상품정보제공 / 56
- 거래처 주식보유 / 56
- 지연관계와의 업무처리 / 57
- 자산 공동 구매 / 59
- 금전거래 / 60

39

거래처 선정에 대한 상사의 부당한 지시

Q

나윤리 사원은 팀에서 필요한 물품을 평소 거래하는 A거래처부터 1천만 원에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 김부패 차장이 평소에 잘 먹지 않던 고가의 회를 사주면서 물품을 B거래처로부터 1천2백만 원에 구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알고 보니 B거래처는 김부패 차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A거래처는 타 거래처와 비교를 해 봐도 품질과 가격이 적합하고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거래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고민된다.

A

설사 팀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B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되며 계획대로 A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팀장과의 대화를 통해 회사의 비용절감과 거래의 투명성 등의 이유를 들어 B거래처로부터의 물품구입은 회사의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의 물품, 용역을 합리적 근거 없이 상식적 수준 이상의 과대평가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행위와 같은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계속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40 특정 거래처의 전문지식 조언

Q 나윤리 사원은 이번에 신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특정기업의 조언을 받게 되었다. 이는 추후 시스템을 발주할 때 공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일단 특정 기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조언을 받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유사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공정성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1 거래처 불공정 입찰

Q 김원칙 부장은 며칠 전 본사 신축 공사를 감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느 날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칸막이벽 시공 입찰을 곧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시공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큰 관심을 보였다. 입찰 신청 공고가 나기 바로 전 그 친구는 계약을 낙찰시켜 주면 인기 있는 골프 회원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친구는 입찰 가격을 고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사실 친구의 회사는 다른 건설회사보다 높게 입찰가격을 써냈고 실적도 중간 정도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A 만일 김원칙 부장이 직위를 남용하여 골프 클럽 회원권이라는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입찰 내용을 조작하면 윤리규범의 행동규칙을 명백히 위반하게 된다.

친구 회사가 건축 비용을 초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김원칙 부장은 고용주와 고객의 이익 보호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

김원칙 부장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대가수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낙찰시 대가를 받고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는 뇌물방지규정을 위반하게 되며, 대가를 제공한 친구도 기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친구의 요청에 응하면 안 된다.



42 거래처의 뇌물수수 및 환경법 위반 적발

Q 나윤리 사원이 오랫동안 거래하던 거래처 대표가 뇌물수수 및 환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는데, 우리 회사와 관련되어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가장 싼값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납기를 잘 지켜준 상황이라서 굳이 거래처를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러한 경우 꼭 거래처를 바꿔야 할까?

A

거래처 대표가 뇌물수수 및 환경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우리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 중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런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약관의 계약해제사유 중에 ‘불법,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청렴 조항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자사와의 관계에서 뇌물수수를 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청렴계약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아래 사례 참고).

[사례] 청렴계약 조항 사례

- ① ‘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 ③ ‘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43

거래처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Q

나윤리 사원은 이번 달 재고물량이 너무 커서 고민이다. 그래서 이번 달 재고물량을 줄이고 실적을 늘이기 위해 대리점에 추가 매입을 요청하려고 한다. 어차피 다음 달 실적에서 감하는 것이므로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매입 요청은 윤리방침에 어긋나는 것일까?



- A** 물량 떠넘기기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이다. 공정하게 거래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존중하는 데에서 진정한 공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나만의 일시적인 실적추구는 거래처의 불편이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삼가야 한다.



44 정치인의 청탁

- Q** 김원칙 부장은 이번에 회사에서 규모가 큰 계약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유명한 정치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게 되

었다. 청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유명한 정치인의 부탁이라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 모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규범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45 임직원의 자사 주식거래 관련 규정

Q 나윤리 사원은 주택청약을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아무런 제약 없이 매매가 가능할지 궁금하다.

A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직원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매매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의 예외는 세제특례가 있는 증권저축(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 근로자 우대저축), 단주매매,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등의 경우이다.

46 업무상 취득한 정보 사용

Q 나윤리 사원은 업무수행 중 한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직무와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다.

A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업무 중 알게 된 경영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내부자 거래에 해당되어 불법이며 윤리규범에도 어긋난다.

47 내부자 정보 제공

Q 나윤리 사원이 거래하고 있는 상장법인인 거래처가 곧 합병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알게 되었는데 윤리규범상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하다.

A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돕는 행위를 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부자 미공개정보의 이용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등에도 금지되어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및 대리인 뿐 만 아니

라 주요 주주 또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임직원도 포함되므로 해당 기업이 당해업체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투자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48 완전한 상품 정보 제공

Q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나투명 대리는 금융상품 개설시 고객에게 투자위험과 손실가능성 등의 고지사항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A 금융상품의 경우 투자신탁, 선물옵션계좌 같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해당상품의 관련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고지사항 설명에 장시간이 걸려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고객도 시간이 없어 고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고객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과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49 이전 직장의 주식 처분

Q 나윤리 사원이 입사 전 재직 중이던 회사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재직 중일 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업무가 재직 중이던 거래처와 관련성은 없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간접적인 관련성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A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윤리담당 부서나 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의 종류, 비율, 직무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보유 승인 여부에 대해 판단 할 것이며 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50 고객사에 입사한 동창과의 업무처리

Q 나윤리 사원의 고객사에 고등학교 동창이 얼마 전 입사 했다. 친구가 고객업체에 있으니 업무상 편한 부분도 있지만 업무 진행과 관련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난처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

A 나윤리 사원의 경우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고객업체가 이해관계가 얹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아무래도 처신이 곤란해서 공정한 업무 집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상급자에게 보고, 업무 분장을 재조정 하도록 해야 한다.

51 거래처에 입사한 친인척과의 업무처리

Q 삼촌이 내가 관리하는 납품업체에 취직을 했다. 거리낌 없이 회사에서 자주 만나게 되고, 납기 기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요구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게다가 타 업체들도 유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가 많아서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 A** 장기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팀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당해 직무에 대한 회피여부에 대해 상담한 후 처리하면 된다.

52 거래처로 이직한 동료와의 관계

- Q** 나윤리 사원과 친하게 지내던 입사동기가 얼마 전 자신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로 이직하였다. 입사동기와 저녁식사 약속을 하였는데 친한 친구이면서, 업무상 이해관계로도 관련이 돼 있어서 식사를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의문이다.

- A** 자신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 보아 거리낄 것이 없다면 만나도 무방하다. 그러나 업무상 관계와 친구로서의 사적인 관계가 중복된다면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53 거래처 직원과 콘도 회원권 공동 구매

- Q** 나윤리 사원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거래처 직원과 친구만큼이나 격식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직원과 함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콘도 회원권을 공동으로 구매하고자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괜

참을 것 같아서 결정한 일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와 공동 투자하여 주식, 콘도, 골프, 헬스클럽 회원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만약 회사와 거래관계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공동투자가 진행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회사 윤리담당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54

거래처에 근무하는 친구와의 금전거래

Q

나윤리 사원은 이번에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거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 친구가 현재 거래처이긴 하지만 오래된 친구이므로 별로 문제될 것 같지 않다.

A

부득이한 경우 정상적인 금리를 주고 빌리는 것은 상관 없다. 친구 관계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느냐'가 문제이다.



IV. 경조사/정보 보호

Q&A

55~71

- 사내 경조금 / 62
- 경조사 공지 / 62
- 거래처 경조금 / 63
- 거래처 축전 / 64
- 공무원의 경조사 / 64
- 정보취득 / 65
- 정보유출 / 66
- 정보폐기 / 66
- 강연요청 / 68
- 고객정보보호 / 68
- 정보보안 / 70

55 팀 경비로 경조금 전달

Q 나윤리 사원은 옆 부서 직원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다. 우리 팀 전체와 친하게 지내던 터라 팀원 모두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축의금을 건어서 팀 차원에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팀의 경비를 사용해서 축의금을 전달하는 편이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안된다. 아무리 팀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경비로 경조사비를 조성하는 행위는 팀원 간 기업윤리에 위배된다.

56 거래처 경조사 공지

Q 나윤리 사원은 오랫동안 모시고 있는 김원칙 부장의 경조사를 거래처 직원에게 알려야할 지 고민이다. 오랜 고심 끝에 만약 거래처 직원에게 귀뜸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 할 것 같아서 전해주었다.

A 거래업체 등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가능하다.

57 거래처의 경조금

Q 김원직 부장은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경조사 때 10만 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게 되었다. 돌려주면 상대방에서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고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A 사회관습 상 경조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나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경조금 수수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58 거래처의 축전

Q 나윤리 사원이 모시고 있는 김원칙 부장이 최근 승진하였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축하인사라서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윤리규범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임직원은 거래처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화분, 꽃바구니, 축전 정도는 인사로 받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화분의 개수가 많거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 예를 들면 5만 원 이상의 고가라거나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거절하거나 반송해야 한다.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59 공무원의 경조사

Q 나윤리 사원은 평소 업무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정부기관 과장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깝게 지내던 분이라 조의금을 내려 하는데 공무원은 경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고민이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가기도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A 공무원에게 경조금을 주는 것은 윤리규범에 위반된다. 공직자 윤리규칙에 의하여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일체의 경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 내에서도 규제 대상이 된다.

60 윤리적 정보 취득 방법

Q 일과 관련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보를 취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의 취득 방법도 중요하다. 나윤리 사원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취득에 있어 윤리적인 방법과 비윤리적인 방법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하다.

A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의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정보의 윤리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윤리적/합법적	비윤리적/비합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출판물, 재판기록, 특허기록 ● 경쟁사 종업원의 공개 증언 ● 시장조사 보고서 ● 공표된 재무기록, 증권사 보고 ● 전시회, 경쟁사의 안내문, 제품설명서 ● 경쟁사 퇴직직원을 합법적으로 면접, 증언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등에서 경쟁사 직원에게 신분을 속이고 질문 ●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등 경쟁사 직원을 비밀로 관찰 ● 채용계획이 없으면서 채용 공고하여 경쟁사 직원을 면접하거나 실제 스카우트 ● 설계도면 훔치기 등 경쟁사에 잠입하여 정보 수집 ● 경쟁사 직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 경쟁사에 위장 취업 ● 경쟁사의 활동을 도청 ● 공갈, 협박

61 외부 보고서 유출

Q 나윤리 사원은 이번에 작성한 회사의 사회공헌 통계 보고서를 사회공헌 담당 부서 및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서의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보고서의 작성자는 나이지만 외부에 유출시킨 건 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A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1차 발송자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차 발송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62 정보 폐기

Q 나윤리 사원은 이번에 프로젝트를 끝내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캐비닛을 열었는데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 중 일부를 버리기 위해 정리를 하던 중 2~3년 전의 오래된 보고서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파일을 임의로 폐기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

A 자료 폐기 시 상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특히 대리점 및 납품업체 선정 검토 등과 같은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는 무단으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63 정보 보안

Q 나윤리 사원은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종종 회사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기밀 사항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 할 때도 많다. 가끔 이야기를 하면서도 혹시 누가 듣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때도 있다. 이러한 행동 역시 정보보안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회사 근처의 인근 식당은 외부인에게는 정보 수집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소 회사 외부에서는 사원증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64 강연 요청

Q 김원직 부장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타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관련 포럼이나 연구회에서 발표를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원직 부장은 회사의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강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되고, 그 시간만큼 업무에 차질을 줄 수도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을 한다. 이러한 요청에 응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임직원은 직무에 대하여 전념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 활동은 금지된다. 그러나 인사팀장이나 윤리경영팀장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외부 활동 시에는 개인의 의견과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구별되게 표현하여야 하며, 발표 자료는 사전에 대외공개가 가능할지 부서장이나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 공무상 협조가 필요한 고객정보

Q 나투명 대리는 은행으로 걸려온 전화를 한통 받았다. 이는 경찰서에서 수사상 필요하다며 전화로 특정 고객의 정보를 묻는 내용이었다. 공무상 협조가 필요한 것이므로 당연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정보 보호의 의무도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다.

A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은 명의인(신탁의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나 판사의 영장 등에 의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고객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동법 제 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6 지인의 고객 정보 요청

Q 나윤리 사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핸드폰 대리점을 오픈 하였다. 친구는 영업 활동을 위해 회사 고객의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

였다. 핸드폰에 관한 안내 메일만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다.

A 당연히 위배된다.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동의 없이 그 누구에도 줄 수 없다. 이는 법으로도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

67 직위를 이용한 고객 정보 공개

Q 나투명 대리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은행 지점에 유명 텔런트가 방문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큰 금액을 입금했다. 나투명 대리는 유명 텔런트와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식구들과 식사하면서 자랑삼아 유명 텔런트의 방문사실을 자랑스레 얘기 했다. 그런데 조카가 이를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행동도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것일까?

A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 사실(누가 어느 금융기관,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여부 자체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는 그 정보가 유명 연예인의 것이라고 악의가 없었다 해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68 거래처와 정보 공개 수준의 한계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과 원칙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한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A 관련부서에 영업비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거래처에서 자사와의 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69 경쟁회사와 자료 교환

Q 나윤리 사원은 최근 관련 시장 조사를 함에 있어서 경쟁회사와 자료를 주고받는 일이 생겼다. 기업 내부 자료는 민감한 사항이나 경쟁회사의 경우 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A 회사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상사 및 법무담당 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70 퇴사 후 경쟁업체 재취업

Q 나윤리 사원의 입사 동기가 얼마 전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재취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사 초기 근로 계약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읽은 것 같은 기억이 난다. 이러한 행동은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0조 1항)에 의거 회사는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 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 영업비밀 유지서약을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금지 또는 경쟁업종 창업이 제한된다.



71 공동연구 결과물

Q 김원칙 부장은 이 분야에 있어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으로 공동 연구 결과물을 출간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개인 저술을 권유받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이 궁금하다.

A 업무상 협력사업 수행 또는 공동연구 과정에서 저술 등을 통해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관련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 및 본인의 명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써 권장돼야 한다. 다만 원고 작성에서 회사의 경영정보나 영업 비밀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간에 앞서 원고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V. 회사 자산 보호/윤리규범 준수

Q&A 72~85

-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 76
- 업무 시간 준수 / 78
- 고객 행사용품 보호 / 80
- 윤리규범 실천 / 81
- 윤리규범 준수 대상 / 82
- 윤리규범 적용 대상 / 83
- 고객에 대한 윤리 / 84
- 거래처에 대한 윤리 / 85

72 사무용품의 사적 사용

Q 나윤리 사원은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회장을 맡게 되었다. 처음 맡은 회장 직이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동창회 모임 공지를 전체 회원에게 팩스로 보내려고 한다. 집에는 팩스가 없는 관계로 회사에서 팩스 공지를 보내다가 김원칙 부장에게 주의를 듣게 되었다.

나윤리 사원은 업무 시간이 끝나고 한 일인데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윤리강령을 꼼꼼히 읽어 보았다. 거기에는 회사의 예산이나 비품 등을 사용할 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다.

A 회사의 용품은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고교 동창을 만나 유흥업소에 가서 즐긴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쓰는 것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73 통신장비의 사적 사용

Q 나윤리 사원은 아내가 10일 가랑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미국과 시차로 인해 나윤리 사원이 근무하는 낮 시간 동안에만 부인과 통화가 가능했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전화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회사 전화를 이용하여 아내와 통화를 했다. 자주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비용도 크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윤리규정에 위반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A** 회사 전산장비는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 중 회
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장시간 전화 등을 해서는 안 된다.

74 업무용 차량 사용

- Q** 나윤리 사원은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교외에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차
가 갑자기 고장나는 바람에 정비업체에 맡기게 되었다. 렌터카를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아 평소에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을 잠시 빌리
기로 하고, 대신 유류비는 개인적으로 부담하려고 한다. 어차피 연휴 기간 동안
에는 사용하지 않을 차이고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
에 윤리경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A**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기업소유의 재산을 개인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75 업무용 항공 마일리지의 개인적 사용

- Q** 나윤리 사원은 업무 차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이다. 이번 달에도 미국에 출장
을 다녀와 무심코 항공 마일리지를 조회해 보니 그동안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일본 항공권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본인의 이름으로 쌓인 항
공 마일리지이고,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아 그냥 사용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회사 출장을 통해 쌓인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물론 이러한 사항이 윤리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회사차원에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생각해 보기를 권장한다. 참고로 행자부 공무원의 공무로 얻은 항공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못쓰고 공무로만 쓰기로 했다고 한다.

76 회의비 사용

Q 나윤리 사원은 팀 전체가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회의비로 처리하는 경우를 본다. 회의비란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보다는 팀 전체의 중식과 석식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무방한지 모르겠다.

A 회의비는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의 회의, 잔업 등과 관련한 용도로 지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77 업무시간 중 인터넷 게임

Q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나른해지는 시간이 있다. 나윤리 사원은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종종 스트레스를 해

소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기도 한다. 옆 자리에 앉은 동료도 회사 컴퓨터에 항상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회사업무를 처리하다가 간간이 시간이 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곤 한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끔씩 하는 이런 행동들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컴퓨터 및 업무시간은 모두 회사의 공유물이다. 따라서 업무시간 중에 회사의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하는 것은 공용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행위는 사무실의 업무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기도 하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행위가 모두 마찬가지이다.



78 점심시간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시청

Q 나윤리 사원은 좋아하는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응원하는 팀이 이겼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다. 그런 날에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스포츠 경기를 감상한다. 업무 시간이 아닌 개인시간에 취미를 즐기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A 회사의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은 적절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적절한 목적이란 업무와 관련되거나 관리자가 승인한 일 등을 말한다. 부적절한 목적이란 성적인 내용을 담거나 타인에 대한 폭력을 주장하는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 자신과 동료들의 생산성에 지장을 주는 것 등을 말한다.

79 고객 경품 행사

Q 나윤리 사원은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 출시하는 신상품 프로모션을 위한 고객대상 경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행사는 대행사에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10만 원, 5만 원, 1만 원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됐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나윤리 사원은 본인도 응모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응모를 권유했다. 행사 추첨 결과 응모자가 많지 않아 나윤리 사원의 지인 가운데 다수가 선정됐다. 이런 경우에 지인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다.

A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응모 현황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응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지인 등에게 알려 응모케 해 당첨되도록 하는 것은 그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80 고객 바자회

Q 회사에서는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행사차원에서 바자회를 실시한다. 나윤리 사원과 팀원들은 바자회의 도우미로 선정되어 행사 준비를 했다. 그러던 중에 나윤리 사원은 평소에 자신이 갖고 싶어 하던 시계가 바자회 물건으로 적당한 가격에 나오게 된 것을 알았다. 어차피 누군가 사게 될 물건이므로 본인이 구입하여 그게 맞는 가격만 지불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A 일반 시민의 참여 유도 등 행사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 구성원이 사전에 선호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81 손해를 무릅쓰는 윤리규범 실천

Q 나윤리 사원은 최근 전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직원들이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정말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하다.

A 모든 기업을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한다면 이익과 윤리가 상충되는 경우 이익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윤리강령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을 축소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사고와 관련된 사항이 발각될 때, 기업이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까지 같이 폭로되면 기업은 비윤리적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윤리경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CEO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높은 윤리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2 윤리규범 준수 대상

Q 회사에는 정규직 직원 뿐 만 아니라 임시직, 파트타임 근무자 등 많은 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윤리규범의 적용이 되는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임시직으로 있는 직원이나 파견 근로자들도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렇다. 정식 직원이든 임시직이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거래업체 역시 당사의 윤리규범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거래 혹은 구매조건으로 볼 수 있고 사전에 응찰자에게 통보가 되므로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업체만 응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83 윤리·규범 적용 대상

Q 나윤리 사원은 윤리규범 선포와 관련한 자료를 읽던 중에 윤리규범 선포 이전에 자신이 한 행위가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포 이전에 한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행위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84 고객에 대한 윤리 준수

Q 윤리경영은 일반적으로 거래처와의 뇌물수수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고객에 대한 윤리경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고객에 대한 윤리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고객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 모든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은 고객만족이라 할 수 있다.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고객의 정보, 자산, 지적재산권은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 고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85

거래처 윤리규범 위반 조치



나윤리 사원은 최근 새롭게 관계를 시작한 거래처에서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난감하다.



거래처와 거래 시 기업의 공정거래에 관한 동의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Ⅵ. 내부신고 제도/윤리적 기업문화

Q&A

86~100

- 내부신고 제도 필요성 / 88
- 내부신고 범위 / 88
- 내부신고 제도 적용 대상 / 90
- 익명제보 / 93
- 내부신고 제도 갈등 해결책 / 94
- 윤리의식 제고 / 95
- 비윤리적 언행 / 96
- 금전거래 / 97
- 직장내 성희롱 / 99

86 내부신고 제도 필요성

Q 나윤리 사원은 입사 초기 윤리교육 시간에 회사에 내부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실제로 내부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웬지 내부신고 제도는 회사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임직원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인 것 같다. 이렇게 불필요한 제도를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A 그렇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뢰와 협동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윤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부정과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신뢰와 협력으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제보는 잘못된 사람을 적발해서 벌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직이 처한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신속히 조치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부제보를 통해서 회사는 조직 내 윤리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경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부제보는 장려되어야 하고 내부제보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87 내부신고 행위의 범위

Q 나윤리 사원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자신의 동생이 이번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다면서 인사팀 직원에게 잘 봐달라며 선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일은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내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였다. 나윤리 사원은 내부 신고는 어떤 행위에 대해 제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윤리경영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범죄행위,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윤리경영의 실천과 정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어떠한 제안이나 제보도 가능하다.



88 자체 해결 가능한 업무의 신고

Q 나윤리 사원은 가끔씩 일을 하다보면 회사와 나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일들도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일들은 굳이 회사에 신고하여 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A 자체적인 내부조치로 해결 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 1) 회사 및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가?
 - 2)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가?
-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89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행위에 대한 신고

Q 나윤리 사원이 속한 사업부에서 얼마 전 환경 관련 돌발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이와 관련한 법규 위반 사실까지 드러났다. 나윤리 사원은 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김부패 차장은 이를 신고하면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나윤리 사원은 김부패 차장의 말을 듣고 고민이 되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A 오히려 회사에서 관련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환경친화 기업이라는 회사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따라서 상사가 이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면 반드시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90 스스로의 일에 대한 신고

Q 나윤리 사원은 친한 거래처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 비윤리적인 줄 알면서도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려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지금은 뇌물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자기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제보대상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거나, 비윤리적인 일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라도 본인이 뇌우치고 스스로 그 사실을 제보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91 자진 신고시 감면

Q 나윤리 사원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스스로 제보를 하고, 처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징계가 감면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 궁금하다.

A 그렇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윤리규범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장과 윤리규범 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 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92 거래처 사람의 신고

Q 나윤리 사원은 저녁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다가 거래처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거래처 사람이 업무 청탁 건으로 식사를 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윤리 사원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 던 참에 거래처 사람이 업무 청탁을 하는 사람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나윤리 사원은 문득 거래처와 같이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도 내부제보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해 졌다.

A 내부제보자보호규정에서 정의하는 제보자는 회사의 임직원을 말한다. 따라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내부신고 제도 절차를 거쳐 제보할 경우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된다.

93 익명 제보

Q 나윤리 사원은 김부패 차장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부패 차장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있던 터였다. 나윤리 사원은 고민을 하다가 향후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김부패 차장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아 이를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자신이 모시는 직속상관이라 실명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다. 이러한 경우 익명으로도 제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다.

A 제보자는 내부제보자보호규정에 의해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제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익명으로 제보하게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94 허위 익명제보

Q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 하는 김원칙 부장. 하지만 딱 부러진 성격 탓에 김 부장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어느날 김원칙 부장이 신고센터에 제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나윤리 사원은 이와 같이 비방이나 음해를 위해 익명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윤리상담센터에 접수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다.

- A** 익명으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 피신고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95 내부신고 갈등 해결책

- Q** 얼마 전 회사에서 나윤리 사원은 동료들과 함께 내부신고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들 신고하여 회사에 관한 분란을 만드느니 조용하게 지내는 편이 낫다고들 말했다.

이렇듯 회사에서는 내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고할 경우

‘동료를 고발한 나쁜 직원’으로 낙인이 찍혀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누구하나 선뜻 신고하려는 사람이 없다. 나윤리 사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지 궁금하다.

A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신고자가 상사, 동료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회사의 부정한 사안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사와 동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의리를 중시하는 국내 기업문화가 상대적으로 유사한 일본 기업에서도 노동조합 직원 50% 이상이 동료 간의 문제라도 내부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96 직장 내 윤리의식 제고방안

Q 나윤리 사원은 윤리경영에서 중요한 것이 기업 전반에 걸쳐 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눈박이 물고기가 사는 곳에는 두눈박이 물고기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 처럼 자신이 아무리 윤리경영을 실천하려 한다 해도 부정부패가 만연한 분위기라면 자신만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계약체결이나 각종 금전 지출과 같이 윤리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분야에서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고 싶다.

A 기업은 윤리적으로 취약한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업무의 매뉴얼과 윤리경영 실천 자가진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어려움 없이 실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97 상사의 비윤리적 언행

Q 얼마 전 있었던 인사이동으로 옆 부서에 김버럭 부장이 새로 취임했다. 김버럭 부장은 사내에서 악명이 높은 부장이다. 부하 직원에게 빈번하게 화를 내며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는다. 나윤리 사원은 가끔 옆 부서에서 들려오는 김버럭 부장의 화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김버럭 부장의 이러한 언행을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상사로부터 비윤리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에는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 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고, 상사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98 동료와의 금전거래

Q 나윤리 사원은 얼마 전 친한 입사 동기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말을 들었다. 동기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돈을 빌려야 하는데 빚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어 어렵게 말을 꺼냈다는 것이다. 평소 친한 사이이고, 동기의 집안 사정을 들으니 동기의 입장이 난처한 것 같아 거절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지 고민이다.

A 동기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회사 내에서 빚보증을 서주지 않는 것이 좋다. 함께 근무하면서 금전관계로 얽히다 보면 서먹한 사이가 되어 사내 분위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빚보증을 청하지도 응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99 성적 농담

Q 나윤리 사원의 동생 나순진은 얼마 전 본인이 가고 싶어 하던 회사에 취업했다. 너무 기뻐하며 입사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순진은 회사에 가기 싫다는 말을 꺼냈다. 나윤리 사원은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동생의 옆자리

에 앉은 남자직원이 성적 농담을 자주 건네며, 업무시간에 음란물을 계속 보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나윤리 사원은 동생에게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싶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A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거절의 의사를 밝히거나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필요한 경우 편지 등의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며, 그럼에도 위와 같은 행동이 계속될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내부고발제도를 이용한다.

* ‘성희롱 행위’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00 술자리 에티켓

Q 팀이 회식을 간 자리에서 남자직원들은 여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주어야 술맛이 난다’며 계속 술잔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곤 한다. 회식 분위기 상 나윤리 사원도 장난스럽게 여직원에게 술잔을 채워달라고 했지만 여직원의 표정이 좋지 않음을 느꼈다. 아무 뜻 없이 장난스럽게 건네는 이러한 말들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직장 동료들은 사심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의 '남녀공무원 기본 예티켓'에 따르면 회식, 환영회 등에서 상사 옆에 좌석을 지정하거나 술 따르기 혹은 춤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록 : 윤리플러스 의사결정 모델

- 윤리플러스 의사결정 모델 / 102
- 참고문헌 / 109

■ 윤리플러스 의사결정 모델 ■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²⁾이 개발한 ‘윤리플러스’ 의사결정 모델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윤리적인 행동이나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부록으로 게재한다.

*출처 : 부패방지독립커미션(ICAC)

1 윤리과정 : 따라야 할 6개의 주요 단계

- ① 관련된 사실을 정립하고 그 사실에 포함된 윤리적인 문제를 확인하라.
- ② 모든 투자자나 당사자들의 주식을 예로 삼아라.
- ③ 각 투자자의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라.
- ④ 실용적인 대안과 투자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라.
- ⑤ 각 대안의 가능성 있는 결과를 기대되는 표준의 참조(플러스 요소)와 비교하고 평가하라.
- ⑥ 가장 적절한 행동 경로를 선택하라.

2) 염정공서(廉政公署 :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1974년 2월 15일 염정공서법, 뇌물방지법, 선거부정 및 불법행위방지법 등 이른바 부패방지 삼륜법의 뒷받침으로 발족되어 홍콩의 부패방지를 담당하고 있는 독립 기구임

2) 플러스 표준 : 고려할 4가지 주요사항

- ① 전문가, 관련된 거래, 회사의 행동규범
- ② 합법적인 요구사항(예를 들어 뇌물 방지 규정, 절도 규정, 범죄 처리 규정 등과 같은 법규에 위반사항은 없는가?)
- ③ 순수한 가치를 타협하지 않기 : 정직, 공정함, 신뢰 등
- ④ 직사광선 테스트 : 예를 들어 그 문제가 공공연하게 논의될 수 있고 걱정없이 결정을 밝힐 수 있는지의 여부

3) 윤리플러스 모델 적용 사례

인터레스트 공학 회사의 전기 엔지니어인 ‘윈스틴’은 하청인의 작업을 감독하고 그들의 요구를 처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는 뛰어난 업적으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한 고급 엔지니어의 공석으로 인해 위해 승진 추천을 그의 상관인 ‘라이언’이 할 정도이다.

한편, ‘윈스틴’은 거대한 상업 단지의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문서 작업을 감독하도록 배정받는다. ‘라이언’이 쉬는 어느 날, ‘윈스틴’은 회계 부서로부터 14만 달러에 해당하는 송장을 받는다. 이것은 「퍼스트 라인」으로 불리는 하청인이 상업 단지에 케이블을 설치한 것에 대한 노동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퍼스트 라인」이 본 케이블 설치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윈스틴’은 다음날 ‘라이언’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 하지만 ‘라이언’은 그에게 그 송장을 처리하라고 이야기 한다. ‘라이언’은 사업대금이 오디오 시스템 설비 계약에 도움을 준 고객 회사의 엔지니어에게 지불된다고 설명하고 사업의 순조로

운 진행을 위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윈스턴’은 그 제안이 불법적인 뇌물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라이언’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말라고 설득한다. ‘라이언’은 사실상 자신이 고객 회사의 엔지니어의 도움을 통하여 입찰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의 사업을 통해 돈을 챙겼음을 ‘윈스턴’에게 숨긴다. 이 대금은 자신을 도와준 고객 회사의 엔지니어에게 보상으로 지불될 것이다. 이런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라이언’은 ‘윈스턴’에게 침묵을 지키도록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그 요구를 진행시키라고 한다. 대가로 그는 ‘윈스턴’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윈스턴’은 망설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 정보를 누설하면 ‘라이언’을 배신하게 되는 것인가?

* 출처 :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1단계 관련된 사실을 정립하고 그 사실에 포함된 윤리적인 문제를 확인하라.

- 나는 라이언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회사를 속이려고 다른 사람들과 음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 나는 라이언에게 잘못된 행동을 그만 두라고 설득했지만 거절당했다.
- 라이언은 비밀 거래를 덮어달라고 요구하고 대가로 고급 엔지니어로의 승진을 확보해 줄 것을 제안한다.
- 내가 배서하고 라이언이 확인한 허위 작업 주문을 처리한다면 아무도 비밀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 라이언은 나를 여태껏 잘 대해 주었고, 나는 그에게 초고속 승진을 추천해 준 호의를 빚졌다.

- 내가 합작한다면 승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단계 모든 투자자나 당사자들의 주식을 예로 삼아라.

- 나 자신
- 내 회사
- 내 고객
- 라이언
- 엔지니어 직업

3단계 각 투자자의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라.

(1) 나 자신

- 내가 보고하지 않는다면 내 직업상의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 내가 라이언과 협력한 것이 밝혀진다면 내 경력을 더럽히게 된다.
- 회사, 직장, 법 집행 당국의 소송과 규율상의 조치에 부딪치게 된다.
- 내가 협력하기를 거절한다면 라이언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인가?
- 내가 기밀을 누설하면 라이언을 배신하는 것이다.
- 라이언이 내가 보고한 뒤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내 승진 전망에 먹구름이 낀다.
- 일단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내가 알면서도 침묵한 것이 드러난다면 나에 대한 평판이 악화된다.

(2) 내 회사

- 거짓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정 손실을 겪는다.
- 만약 직원이 자신의 이득에만 열중 한다면, 기업 단체 문화가 나빠지고 회사

발전에 영향을 준다.

- 라이언의 잘못된 행동이 묵인된다면 다른 직원에게 불공평하다.

(3) 내 고객

- 불법적인 관계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재정적인 손실을 겪는다.
-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 묵인된다면 거래관계에 신뢰를 잃게 된다.

(4) 라이언

- 회사/고객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거래처와의 청렴결백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직업적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
- 법률 회사, 직장, 법 집행 당국의 소송과 규율상의 조치에 부딪치게 된다.
-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고 밝혀진다면 경력이 손상된다.
-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면 과오 행위가 지속된다.

(5) 엔지니어 직업

- 구성원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음모를 꾸민 것으로 밝혀진다면 직업의 명성을 더럽히고 신뢰성에 해를 끼치게 된다.
- 직업과 구성원에게 대중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4단계 실용적인 대안과 투자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라.

- 라이언과 결탁한다.
- 라이언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비밀을 지킨다.

- 라이언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 집행력 있는 당국에 보고 한다.
- 협조에서 손을 떼고 회사도 그만둔다.

5단계 각 대안의 가능성 있는 결과를 기대되는 표준의 참조와 비교하고 평가하라.

직업적인 행동 규정과 회사 규칙

(1) 엔지니어의 행동규칙

- 엔지니어가 불법적인 이득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엔지니어가 고용자와 고객에게 완전히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
- 엔지니어가 비윤리적, 불법적, 불공정한 직업적인 관계에 대하여 증거를 알게 될 경우 관련 기관에 알리도록 한다.

(2) 회사 규칙

- 이득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회사 지침이 있는가?

법적인 요구사항

(1) 뇌물 금지 조례 중 제 9항

- 엔지니어가 직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객관성에 해를 주거나 고용자나 고객의 이해관계에 위협할 수 있는 불법적인 이득을 수수하는 것을 금한다.
- 엔지니어가 고용자와 고객을 포함한 자신의 상관을 속이기 위해서 허위 문서,

영수증, 계산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 엔지니어가 부패 범죄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는 것을 금한다.

(2) 범죄 고소 사례

- 엔지니어가 구속될 수 있는 범죄를 은폐하려고 보상받는 것을 금한다.

(3) 절도 조례

- 엔지니어가 허위 문서를 사용하여 속이는 것을 금한다.

순수한 가치를 타협하지 않기

- 내가 업무를 수행할 때 정직, 불공정, 신뢰와 같은 개인적인 가치와 균형 잡힌 특정한 대안이 있는가?

선사인 테스트

- 걱정 없이 내가 선택한 결정을 회사, 동료, 친구,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그룹에게 알릴 수 있는가?

6단계 가장 적절한 행동 경로를 선택하라.

- 플러스 표준에 비추어 각 대안을 평가하고 중요한 가치와 모든 투자자의 이해 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 경로를 선택한다.
- 그 선택을 따라 이행한다.

■ 참고문헌 ■

- 포스코, 기업윤리 핸드북
- 현대오일뱅크, 윤리경영가이드북
- 한국서부발전, 함께하는 clean-서부
- 현대모비스, 사례응답 Q&A
- 산업은행, 윤리행동강령사례 Q&A
- 현대기아자동차, 윤리경영 Q&A
- IBM Korea, 기업윤리지침
-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윤리의사결정 모델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매뉴얼
- 국가청렴위원회, 관행인가 부패인가

문답으로 이해하는 알기 쉬운 -

윤리경영 100문 100답

발행 2007년 10월 00일

재발행 2007년 10월 00일

발행인 ○ ○ ○

편집인 ○ ○ ○

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전화 : 02) 6050-3114

팩스 : 02) 6050-3939

홈페이지 <http://scm.korcham.net>

디자인·인쇄  생각하는 종이

전화 : 02) 2272-8447

팩스 : 02) 2272-8437

〈 비 매 품 〉